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그 대처행동 및 정신건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김 오 남¹⁾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그에 대한 청소년자녀의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녀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그 대처행동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두 부모를 둔 청소년자녀 460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자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는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2.612로 각 하위영역을 보면 해결영역이 3.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도, 대처효율성, 빈도 순등을 보였다. 갈등대처행동은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이 2.740으로 나타났으며 이성적 대처가 3.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회피,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 외부도움요청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서는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2.734로 하위영역에서 강박증이 3.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우울, 신체화, 편집증, 불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서는 5점 척도에서 전체 평균 1.911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음주와 흡연과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서는 2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이 정신건강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울 29%, 정신증 24%, 대인민감성과 불안이 각각 23%, 강박증과 적대감이 각각 22%, 편집증 18%, 공포불안 12%, 신체화 8%로 각각 나타났다. 정신건강 전체에는 회피, 부정적 감정이나 표출, 부부갈등인지, 외부도움요청, 학업성적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청소년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이 문제행동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9%, 싸움이나 사고 8%, 무단결석 4%, 음주, 흡연 3%로 비교적 낮은 영향력을 보였으며, 문제행동 전체에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 남학생인 경우, 이성적 대처, 학업성적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주요어 :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 정신건강, 문제행동

1)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Tel : 061-469-1235, E-Mail : onk@mail.dacbul.ac.kr

I. 서론

문제있는 결혼생활에서 문제있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견해는 이미 1930년대부터 사회과학자, 심리역동분석가, 가족체계이론가 및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모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되며 비난, 언쟁, 신체적 싸움, 가출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전략들이 포함된다(Strauss, 1979).

자녀는 기초적인 대인관계형성의 대상인 부모를 통해 세상과 대인관계, 자기자신에 대한 도식(schema)을 형성한다. 이러한 도식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여러 대인관계경험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즉 가족내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의 능력을 배우는 자녀는 부모간의 불화에 민감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거나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Grych & Fincham, 1990). 또한 아직 사회적으로 인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부문제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Cummings & Davies, 1994; Emery, 1982; Grych & Fincham, 1990). 이는 부모의 대립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부부갈등을 측정한 지표들은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ummings & Davies, 1994; Emery & O'Leary, 1984; Jenkins & Smith, 1991).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현화 문제(변영인, 1995; 이민식, 1999; 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불안 및 위축,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권영옥, 이정덕, 1999; 김정란, 2004; 이민식, 1999; El-Sheikh, Harger, & Whitson, 2001), 공격성(강덕귀, 2002; 권영옥, 이정덕, 1999), 반사회성과 비행(이정미, 2002), 정서적 안녕(Jekielek, 1998), 사회적 능력(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학업성취(조영란, 1993)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부갈등은 자녀의 여러 영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녀의 부적응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인지맥락적 틀(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을 근거로 한 Grych와 Fincham(1990)의 인지맥락모형에서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자녀가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유형에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rych & Fincham, 1990). 따라서 부부갈등이 자녀의 모든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정도 등에 따라서도 자녀의 부적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는 더욱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Cummings & Cummings, 1988). Fincham, Grych와 Osborne (1994)는 부모간의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정도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있고 부모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위협과 자기비난은 자녀의 내면화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하여 갈등의 차원에 따라 나타나는 자녀행동문제의 유형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다른 영역보다 부부갈등의 빈도는 자녀의 공격행동, 과잉, 미성숙, 불안, 위축, 전체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었다(권영옥, 이정덕, 1999).

한편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갈등자체보다는 갈등에 대한 자녀의 대처가 중요하다(Grych & Fincham, 1990; Kerig, 2001). 즉 부부갈등에 자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는 자녀의 적응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남아의 경우 회피대처는 내면화와 외현화된 건강 문제에, 여아의 경우 지지대처와 적극적 대처방식이 자존감과 우울에, 남아와 여아 모두는 오락(distraction)대처방식이 보호적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icolotti, El-Sheikh, & Whitson, 2003).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현아와 박영애(2004)의 연구에서는 해결방안 강구, 지지추구 등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소망, 기원, 보복양갈음 등의 대처행동은 행동

문제를 증가시켰다. 특히 소망, 기원은 불안, 과잉, 미성숙행동을 증가시키고, 해결방안강구는 불안, 공격, 미성숙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1997)과 정연우(2001)는 스트레스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할수록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가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할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함께 대처행동이 자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녀가 어린시기부터 부모들은 부부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녀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을 포함한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성차, 부부갈등의 빈도와 강도,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인지와 대처행동 등이 자녀의 부정적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때 자녀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을 포함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인들의 탐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부갈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빈도, 강도, 내용, 해결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갈등의 다차원적 성격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부갈등척도들(Conflict Tactics Scale; Straus, 1979; OPS; Porter & O'Leary, 1980)도 부부간의 언어적, 신체적 공격의 빈도와 의견 불일치의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갈등의 유형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부부갈등의 빈도가 아닌 갈등의 다차원적 양상을 평가하는 것이 갈등

과 그 결과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부모의 자기보고나 부부간의 상호관찰을 통해 측정된 부부갈등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자녀의 적응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정도를 일관성있게 예측해 준다(Grych, Seid, & Fincham, 1992). 부부갈등을 경험한 자녀들의 즉각적인 감정반응(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대처행동 및 역기능적인 반응(Grych & Fincham, 1993), 장기적인 심리적 적응수준(Fincham, Grych, & Osborne, 1994) 등도 제 삼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의 정도보다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의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갈등에 대해 보다 부모자신보다는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부부갈등, 그 갈등대처행동, 및 정신건강 증상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먼저,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그 갈등대처행동 및 정신건강과 문제행동 등의 하위요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후 궁극적으로 자녀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연구문제 1>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그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과 그 부부갈등에 대한 자녀의 대처행동이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1> 부부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2> 부부갈등과 대처행동이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II. 연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거주하면서 두 부모가 생존해 있는 청소년 자녀 460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집과정에서 지역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와 전남 3개군의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각 지역에 남자고등학교 1개교와 여자고등학교 1개교 총 16개교를 단순표본 추출방식으로 각 1개 학급씩을 전수조사하였다. 설문방식은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의 도움으로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각각 배부하여 즉시 기입하게 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5년 4월 3일에서 10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일부 수정보완한 설문지로 2005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550부를 배부하여 520부가 회수되었으며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않는 것과 양부모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46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남학생은 50.4%, 여학생은 49.6%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	남학생	232(50.4)	결혼	20년미만	283(61.5)
	여학생	228(49.6)	지속기간	21년이상	131(28.5)
모연령	30대	30(6.5)	모취업	유	271(58.9)
	40대	403(87.6)		무	181(39.3)
	50대이상	15(3.3)	부직업	단순노무직	27(5.9)
부연령	30대	4(.9)		사무직	161(35.0)
	40대	361(78.5)		자영업	128(27.8)
	50대이상	84(18.3)		서비스직	22(4.8)
종교	없다	230(50.0)		전문직	35(7.6)
	있다	227(49.3)		기타	81(17.6)
월평균 소득	150만원이하	87(18.9)	학교성적	상위권	34(7.4)
	151-200만원	99(21.5)		중상위권	96(20.9)
	201-300만원	108(23.5)		중위권	197(42.8)
	301-400만원	54(11.7)		중하위권	99(21.5)
	401만이상원	52(11.3)		하위권	34(7.4)
모학력	중졸이하	72(15.7)	부학력	중졸이하	43(9.3)
	고졸	281(61.1)		고졸	210(45.7)
	대졸	94(20.4)		대졸	159(34.6)
	대학원졸이상	9(2.0)		대학원졸이상	43(9.3)

며, 청소년 자녀의 종교는 없음이 50.7%, 있음.

이 49.3%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이 42.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중하위권이 21.5%, 중상위권이 20.9%, 상위권과 하위권이 각각 7.4%로 나타났다. 모연령은 40대가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연령도 40대가 78.5%로 주류를 이루었다. 월평균소득은 201만원에서 300만원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1만원에서 200만원은 21.5%, 그 외 150만원 이하가 18.9%, 301만원에서 400만원이 11.7%, 401만 이상이 11.3%로 나타났다. 모취업에서는 있음이 58.9%, 없음이 41.1%로 나타났으며 부

의 직업종류는 회사원, 공무원 등 사무직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영업, 판매직이 27.8%, 기타 17.6%, 전문직, 경영관리직이 7.6%, 단순노무직이 5.9%로 각각 나타났다. 모학력은 고졸이 61.1%, 대졸이 20.4%로 나타났으며 부학력은 고졸이 45.7%, 대졸이 34.6% 부의 학력이 모의 학력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공교수 3인과 청소년분야 박사학 위소지자 2인에 의해 안면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학업성적, 종교유무, 가정월평균소득, 모 취업유무, 부직업 등을 조사하였다.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이란 자녀가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 대해 지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을 평가하기 위해서 권영옥과 이정덕(1997)에 의해 타당도가 검증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사용하였다. CPIC는 부부갈등의 빈도, 부모님은 다투실 때 '큰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등의 강도, 부모님이 다투실 때 '겁이 난다'와 '다치실까 걱정된다' 등 지각된 위협,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와 '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등 대처 효율성, '부모님은 다투실 때 나의 탓이라고 한다'의 자기비난, '부모님은 다투실 때 부모님 중 한분의 편을 들기 원한다'의 삼각관계 등 20문항의 8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조사도구는 3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측정용이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갈등대처행동

갈등대처행동 도구는 Folkman, Lazarus, Dunkel-Schetter, DeLongis, & Gruen(1986)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갈등대처행동 도구는 '문제자체에 초점을 두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갈등을 빨리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다' 등 이성적 대처 5문항, '선생님과 이야기 하거나 조언을 듣는다', '친한 친구나 이웃과 상의한다' 등 외부 도움요청 5문항, '논쟁의 불씨가 되는 주제는 피한다', '내 자신을 탓하거나 운명 탓으로 돌린다' 등 회피 5문항,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화를 낸다', '물건을 집어던질 듯이 한다' 등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5문항의 4개 하위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정신건강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를 김광일과 김재환(1984)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SCL-90-R은 심리치료나 향정신병 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고, 심리진단검사를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적 증상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검사이다.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정신과적 증상차원(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1개의

심리적 증상을 대표한다. 검사를 받은 사람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의거하여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화(2003)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청소년의 비행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수준의 문제행동까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을 괴롭히는 행동, 싸움이나 사고, 무단결석, 음주와 흡연 등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지난 6개월 동안 경험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는데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은 .875, 갈등대처행동은 .774, 정신건강은 .839, 문제행동은 .752로 각각 나타났다.

자료분석 방법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퍼센트,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평균, 표준편차를, 상관관계는 Pearson's r , 변인간 차이분석은 t 검증, F 검증, 각 변인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분석은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청소년의 부부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지각 경향성

청소년자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면 문항들합의 평균을 낸 결과 1점에서 5점 범위 중 전체평균점수는 3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해결영역이 3.6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님이 다투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강도가 2.770, 대처효율성이 2.725, 빈도가 2.652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갈등의 강도가 해결영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처효율성도 빈도와 함께 높게 나타나 부부갈등의 양상과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부부갈등으로 인한 자기비난, 부모와의 삼각관계, 부부갈등으로 인한 지각된 위협이 그 다음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대한 청소년자녀의 대처행동도 1점에서 5점 범위 중 전체 평균이 3점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대처 하위영역 중 이성적 대처가 3.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자녀가 부부갈등에 다른 대처방법보다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피, 2.726,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이 2.531로 비교적 감정과 관련된 정서적 대처방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도움요청은 가장 낮은 대처방법으로 나타나 비교적 혼자 대처하는 것으로 이 시기 청소년자녀의 갈등대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자녀의 내면화 문제를 나타내는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1점에서 5점 범위

중 전체적으로 평균이 3점 미만으로 2.734점을 보이고 있다. 정신건강의 하위영역 중 강박증이 3.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민감성이 3.035로 3점을 넘어 비교적 강박과 대인민감성의 정신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2.837, 신체화가 2.824 순으로 우울증상과 신체적 고통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 외 편집증이 2.655, 불안이 2.605, 적대감이 2.565, 정신증이 2.537로 각각 나타나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다른 선행연구들(김용석, 2001; 김재환, 김광일, 1984; 이상준, 2003)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신증상 중 강박증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신증상 중 강박증상을 가장 높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문제행동 중 음주와 흡연의 문제가 평균 2.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이 주로 나타났다. 그 외 싸움이나 사고, 무단결석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부부갈등지각과 대처행동 중 이성적 대처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r=-.111$)을 보였으나 회피($r=.349$)와 부정적 감정·행동표출($r=.232$)과는 정적 상관을 보여 부부갈등지각이 높을수록 이성적 대처방법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지각과 정신건강과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증상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경남(2004)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내재화된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안($r=.365$), 정신증($r=.352$), 우울($r=.312$) 등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자녀의 불안, 정신증과 우울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의 관리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부갈등지각과 문제행동간에도 높지는 않으나 유의한 정적 상관($r=.120$)이 나타나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을 더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권영옥과 이정덕(1999)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지각과 전체 문제행동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33$)가 나타나 둘간의 깊은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대처행동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처행동 중 이성적 대처와 외부도움요청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대처행동을 더 많이 행할수록 정신건강 증상이 더 낮게 나타나는 관계를 보였다.

회피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감정적이고 정서적 대처방법을 행할 때 정신건강의 증상도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대처행동 중 이성적 대처와는 유의한 부정적 상관($r=-.154$)이 나타났으며 회피($r=.144$)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r=.259$)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부정적 대처행동을 할수록 문제행동은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양현아와 박영애(2004)의 연구에서도 해결방안강구의 대처행동은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소망·기원 등의 소극적 대처행동은 문제행동과 유의

표 2.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

변 인		M(SD)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빈도	2.652(1.168)
	해결	3.651(.843)
	내용	1.941(.836)
	지각된 위협	2.403(.864)
	자기비난	2.489(.626)
	강도	2.770(.639)
	대처효율성	2.725(.862)
	삼각관계	2.471(.983)
전 체		2.612(1.011)
갈등 대처 행동	이성적 대처	3.273(.696)
	외부도움요청	2.425(.722)
	회피	2.726(.609)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	2.531(.777)
	전 체	2.740(.701)
정신 건강	신체화	2.824(.855)
	강박증	3.389(.715)
	대인민감성	3.035(.729)
	우울	2.837(.963)
	적대감	2.605(.719)
	공포불안	2.565(.911)
	편집증	2.182(.652)
	정신증	2.655(.749)
	전 체	2.537(.857)
	전 체	2.734(.794)
문제 행동	남을 괴롭힘	2.085(.977)
	싸움이나 사고	1.767(.953)
	무단결석	1.669(1.036)
	음주와 흡연	2.122(1.236)
	전 체	1.911(1.051)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정적이고 정서적 대처행동보다 해결중심적이고 적극적이며 이성적인 대처행동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008 < r < .399$ 의 범위로 독립변수들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앞서의 차이분석에서 이용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부갈등과 갈등대처행동들 즉 이성적 대처, 외부도움요청, 회피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들을 선정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Durbin-Wats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997-2.006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공선성검증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 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대처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표에는 회귀계수관련 통계치가 최종단계에서 구해진 값들을 제시한 것이다. 정신건강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부부갈등과 대처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증상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정신건강 증상에 33%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에서는 우울에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정신증 24%, 대인민감성과 불안 23%, 강박증과 적대감 22%, 편집증 18%, 공포불안 12%, 신체화 8%로 각각 나타났다. 즉 청소년자녀의 부부갈등지각과 대처행동의 영향력이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정신증, 대인민감성과 불안 등

표 3. 부부갈등,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111*														
3	-.008	.368***													
4	.349***	-.180***	.020												
5	.232***	-.175***	.054	.176***											
6	.210***	-.073	-.028	.204***	.215***										
7	.244***	-.220***	-.153**	.343***	.245***	.450***									
8	.287***	-.183***	-.103*	.303***	.309***	.424***	.459***								
9	.312***	-.144***	-.007	.309***	.312***	.411***	.444***	.583***							
10	.365***	-.150**	-.065	.341***	.277***	.501***	.487***	.597***	.632***						
11	.288***	-.138**	-.189***	.245***	.299***	.396***	.431***	.546***	.407***	.509***					
12	.261***	-.226	-.123**	.224***	.172*	.401***	.334***	.446***	.443***	.590***	.417***				
13	.245***	-.177***	-.161**	.293***	.249***	.450***	.476***	.632***	.488***	.552***	.560***	.613***			
14	.352***	-.116*	-.072	.390***	.246***	.518***	.420***	.543***	.521***	.597***	.549***	.473***	.603***		
15	.385***	-.206***	-.127**	.399***	.352***	.679***	.660***	.778***	.749***	.823***	.726***	.688***	.794***	.788***	
16	.120*	-.154**	-.029	.144**	.259***	.207***	.257***	.208***	.189***	.211***	.407***	.212***	.273***	.407***	.212***

*p<.05, **p<.01, ***p<.001

(1.부부갈등, 2.이성적 대처, 3.외부도움요청, 4.회피, 5.부정적감정/행동표출, 6.신체화, 7.강박증, 8.대인민감성, 9. 우울, 10. 불안, 11.적대감, 12.공포불안, 13.편집증, 14.정신증, 15.정신건강전체, 16. 문제행동전체)

다른 정신증상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 증상 중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처행동 중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할수록, 회피대처를 할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신체화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12.345로 신체화 변량의 8%를 설명해 주고 있다.

강박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처행동 중 회피대처를 할수록,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할수록, 외부도움요청을 하지 않을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강박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22.666으로 강박증상 변량의 22%를 설명해 주고 있다.

대인민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할수록, 회피대처를 할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부도움요청을 하지 않을수록, 여학생인 경우 대인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24.063으로 대인민감성 변량의 2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회피대처를 할수록, 여학생인 경우,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하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3.931로 우울 변량의 29%를 설명해 주고 있다.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회피대처를 할수록,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0.565로 불안 변량의 23%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4. 부부갈등과 갈등대처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변 인	신체화			
	<i>B</i>	β	<i>R</i> ²	<i>F</i>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14	.16***		
회피	.15	.14***	.08	12.345***
부부갈등	.14	.11*		
변 인	강박증			
	<i>B</i>	β	<i>R</i> ²	<i>F</i>
회피	.23	.24***		
학업성적	.55	.19***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12	.16***	.22	22.666***
외부도움요청	-.12	-.15**		
부부갈등	.11	.10*		
변 인	대인민감성			
	<i>B</i>	β	<i>R</i> ²	<i>F</i>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16	.22***		
회피	.22	.23***		
부부갈등	.18	.16**	.23	24.063***
외부도움요청	-.12	-.15***		
성#	.16	.13**		
변 인	우울			
	<i>B</i>	β	<i>R</i> ²	<i>F</i>
회피	.29	.23***		
성#	2.04	.26***		
부부갈등	.23	.19***	.29	33.931***
학업성적	.67	.17**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14	.14*		
변 인	불안			
	<i>B</i>	β	<i>R</i> ²	<i>F</i>
부부갈등	.11	.24***		
회피	.25	.21***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17	.18***	.23	30.565***
학업성적	.39	.11*		

dummy variable(성#: 남=0, 여=1)

*p<.05, **p<.01, ***p<.001

표 4. 계속

변 인	적대감			
	<i>B</i>	β	R^2	<i>F</i>
부정적감정행동표출	.26	.27***		
부부갈등	.25	.18***		
외부도움요청	-.20	-.19***	.22	23.236***
성#	-1.00	-.14***		
회피	.15	.13		
변 인	공포불안			
	<i>B</i>	β	R^2	<i>F</i>
부부갈등	1.02	.18***		
이성적 대처	-.14	-.19***	.12	17.758***
회피	.11	.13*		
변 인	편집증			
	<i>B</i>	β	R^2	<i>F</i>
회피	.22	.22***		
부정적감정행동표출	.15	.20***		
외부도움요청	-.15	-.19***	.18	21.808***
부부갈등	.13	.11*		
변 인	정신증			
	<i>B</i>	β	R^2	<i>F</i>
회피	.31	.28***		
부부갈등	.25	.22***		
부정적감정행동표출	.16	.18***	.24	31.713***
종교##	-.64	-.09*		
변 인	정신건강전체			
	<i>B</i>	β	R^2	<i>F</i>
회피	1.88	.26***		
부정적감정행동표출	1.37	.24***		
부부갈등	.60	.22***	.33	39.376***
외부도움요청	-.84	-.14**		
학업성적	2.76	.12**		

dummy variable(성#: 남=0, 여=1)

* $p < .05$, ** $p < .01$, *** $p < .001$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표출할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부도움요청을 하지 않을수록, 남학생인 경우, 회피대처를 할수록 적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23.236으로 적대감 변량의 22%를 설명해 주고 있다.

공포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이성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회피대처를 할수록 공포불안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17.768로 공포불안 변량의 12%를 설명해 주고 있다.

편집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외부도움요청을 하지 않을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편집증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21.808로 편집증 변량의 18%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정신증에 미치는 영향력은 회피대처를 할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정신증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1.713으로 정신증 변량의 24%를 설명해 주고 있다.

정신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회피대처를 할수록,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외부도움을 요청하지 않을수록, 학업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정신건강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39.376으로 전체 정신건강 변량의 3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부부갈등지각은 모든 정신건강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처 방법 중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대처방법이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법보다 정신건강 증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보여 정신

건강 증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적인 대처방법의 절제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이성적인 대처방법의 활용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인민감성, 우울과 적대감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인 경우 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이들에 대한 개입시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은 강박증, 우울, 불안 증상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 청소년기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지할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청소년의 행동문제 중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성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회피대처를 할수록 남을 괴롭히는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즉 감정적 대처를 할수록 남학생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11.536으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의 전체 변량의 9%를 설명해 주고 있다.

청소년의 행동문제 중 싸움이나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이성적 대처를 할수록 싸움이나 사고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18.568로 싸움이나 사고의 전체 변량 8%를 설명해 주고 있다.

무단결석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무단결석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8.443으로 무단결석의 전체 변량 4%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음주와 흡연에는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을 할수록 음주와 흡연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12.067이며

표 5.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변 인	남을 괴롭힘			
	<i>B</i>	β	<i>R</i> ²	<i>F</i>
이성적 대처	-.24	-.12**		
성#	-.33	-.17***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31	.17***	.09	11.536***
회피	.17	.10*		
변 인	싸움이나 사고			
	<i>B</i>	β	<i>R</i> ²	<i>F</i>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29	.24***		
이성적 대처	-.16	-.11**	.08	18.568***
변 인	무단결석			
	<i>B</i>	β	<i>R</i> ²	<i>F</i>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29	.18***		
성#	-.21	-.10*	.04	8.443***
변 인	음주와 흡연			
	<i>B</i>	β	<i>R</i> ²	<i>F</i>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35	.16***	.03	12.067***
변 인	문제행동전체			
	<i>B</i>	β	<i>R</i> ²	<i>F</i>
부정적 감정행동표출	.20	.27***		
성#	-.90	-.15**		
이성적 대처	-.21	-.10*	.12	14.392***
학업성적	-.36	-.10*		

dummy variable(성#: 남=0, 여=1) * $p < .05$, ** $p < .01$, *** $p < .001$

음주와 흡연행동 전체 변량의 3%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청소년의 행동문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할수록,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이성적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이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14.392로 행동문제 전체 변량 12%를 설명해 주고 있다.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을 하는 대처방법은 모든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며 남학생인 경우 무단결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남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지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은 정신건강 증상보다 부부갈등지각, 성, 대처방법 등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부갈등지각이 정신건강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 결과와 대조적으로 문제행동에는 부부갈등 지각이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부정적인 감정표출 대처행동이 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때 감정적 대처방법의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현아와 박영애(2004)의 연구에서는 소망·기원의 대처행동과 해결방안강구가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행동문제에 소망·기원은 긍정적 영향을, 이성적 대처인 해결강구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여 문제행동 감소에 이성적 대처행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보다 소망·기원대처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보인다고 하였다. 이경남(2004)의 선행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이 내면적, 외현적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어 부부갈등인지가 높을수록 내재화된 행동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내면적, 외현적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지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이에 대한 대처행동,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녀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자녀의 부부갈등지각과 대처행동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두 부모를 둔 청소년자녀 460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자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은 해결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강도, 대처효율성, 빈도 순으로 나타났다. 권영옥과 이정덕(1999)의 연구에서는 대처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각된 위협, 강도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정도 등에 따라 자녀의 부적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즉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는 더욱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Cummings & Cummings, 1988)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자녀의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부부갈등이 자녀자신에 관한 내용일 때 자녀는 부적응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김소향, 1994). 이러한 결과들은 부부갈등의 유무와 더불어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자녀부적응에 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대처행동은 이성적 대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회피,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 외부도움요청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데 부부갈등해결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결과(권영옥, 이순형, 1999)를 볼 때 대처행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양현아, 박영애(2004)의 연구에서는 이성적 대처의 하나인 해결방안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회피, 부정적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보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청소년 자녀는 긍정적 대처와 부정적 대처방법이 공존함을 보여주었다.

정신건강에서는 강박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우울, 신체화, 편집증, 불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들(김용석, 2001; 김광일, 김재환, 1984; 이상준, 2003)에서도 강박증이 가장 높고 공포불안증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제행동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나 음주와 흡연,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문제행동의 유형은 다르나 양현아와 박영애(2004)의 연구에서는 불안행동과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정문자와 전연진(2004)은 비행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연구들에 따른 문제행동양상은 다양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문제행동은 그 자체가 청소년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자녀의 정신건강 전체에 회피, 부정적 감정이나 표출, 부부갈등지각, 외부모용요청, 학업성적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경남(2004)은 부부갈등이 내재화된 행동문제에 영향을 주어 부부갈등지각이 높을수록 내재화된 행동문제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처에 있어서도 양현아와 박영애(2004)의 연구에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보다 소망·기원대처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성적 대처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여 문제행동감소에 이성적 대처행동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부갈등맥락에서 대처방식 중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외현적 문제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내면적 행동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었다(O'Brien, Margolin, & John, 1995; Rogers & Holmbeck, 1997). 긍정적 인지대처전략은 갈등가족에서 내면적, 외현화 문제와 부정적으로 관련되었다. 따라서 내면적 문제인 정신건강 증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부부갈등지각이 낮을 때 다양한 대처유형 중에서도 이성적 대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며 반면 정서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는 오히려 증상자체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청소년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을 괴롭히는 행동 9%, 싸움이나 사고 8%, 무단결석 4%, 음주와 흡연은 3%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전체에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표출, 남학생인 경우, 이성적 대처, 학업성적 등이 유의한 영향을 주며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성과 관련해 여아의 경우 회피대처는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으로 관련되었다(Kerig, 2001).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경우 외현화된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지각이 높을수록 외현화 행동문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권영옥, 이정덕, 1999; 이경남, 2004). 본 연구에서도 남을 괴롭히는 행동과 무단결석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대처의 방식 경우에도 스트레스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다는 이현정(1997)의 연구와 긍정적인 대처방법은 행동문제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정적 대처방법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한 정연우(2001)의 연구는 자녀가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행동이 문제행동감소에 적절한 대처방법의 하나로서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인지에서 해결영역과 강도영역이 동시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자녀가 부부갈등발생시 해결이 원활히 되어야 하는 두려움이 크다고 인지함과 동시에 갈등의 강도가 높다는 결과를 볼 때 발단단계 상 민감한 청소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갈등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표출방법의 적절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그 방법에 대한 부부갈등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겠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강박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입시와 경쟁적인 학력위주의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강박증을 감소시키는데 학교차원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행해지며,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입시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여가문화화유도 등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 중 음주와 흡연 등 약물중독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술과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외국 선진국의 경우보다 용이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호기심과 주위 또래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청소년의 이러한 문제행동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차 미래의 가족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주도적인 금연교육과 금주교육 및 캠페인의 활성화를 통해 문제행동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넷째, 정신건강 증상에 부부갈등지각이 공통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심각할수록 이들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부부와 동시에 자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부들은 자

녀앞에서 부부갈등을 표출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부부갈등이 피할 수 없는 요소라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기 뿐만아니라 청소년기까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갈등관리에 개입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정신건강 증상과 문제행동에 회피, 부정적 감정이나 표출 등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대처방법이 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활용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른 지속적인 훈련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자신의 노력 등이 수반될 때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문제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프로그램들이 적극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대인민감성, 우울과 적대감 등 정신 증상과 문제행동에 성별차이를 나타냈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인 경우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였다. 이는 남학생인 경우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공격행동이나 충동성 등이 쉽게 남자다움으로 간과되어온 사회문화적 특성을 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겠다. 기존 선행연구들(Essex, Klein, Cho, & Kramer, 2003; Synder, 1998)에서도 여아보다 남아에게 외현화 문제 즉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볼 때 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 방법과 내용이 문제행동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을 살펴보고 이 갈등에 대처하는 양상들이 정신증상과 문제행동의 내외적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게 하였다는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부관계의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자녀의 내외적인 건강문제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제한점으로는 다양한 청소년자녀의 표집으로 연령에 따른 양상을 파악하지 못한 점, 응답하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갈등지각으로 심각한 임상적 수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대처행동의 매개적 속성에 대한 보다 적절한 분석 및 다른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탐색과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에 있어 질문지를 활용하여 내용분석에 있어 심층적인 결과를 끌어내는데 한계를 갖는다.

참고문헌

- 강덕귀 (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권영옥, 이순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부부갈등해결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0(4), 61-74.
- 김광일, 김재환 (1984). 간이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사.
- 김소향 (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용석 (2001). 청소년의 문제성음주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27-45.
- 김정란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83-690.
- 김희화 (200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인터넷 비행에 대한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10(3), 133-153.
- 변영인 (1995).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및 양육태도와 일탈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양현아, 박영애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이경님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 이상준 (2003). 인터넷 섹스중독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341-364.
- 이정미 (2002).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 이현정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 정문자, 전연진 (2004).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부부갈등 및 아동 행동문제의 일반적 성향과 이들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9), 161-175.
- 정연우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

- 처방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석사논문.
- 조영란 (1993). 부부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T. Greenberg, D. Cicchetti, & E.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273-30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Cummings, E. M., & Cummings, J. L. (1988).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Cumming, E. M., & Davies, P. T.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5(1), 73-112.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ummings, E. M., Davies, P. T., & Simpson, K. S.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El-Sheikh, M., Harger, J., & Whitson, M. S. (2001). Exposure to interparental conflict and physical health: the moderating role of vagal tone. *Child Development*, 72(6), 1617-1636.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Essex, J. M., Klein, H. M., Cho, E., & Kramer, C. H. (2003). Exposure to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later mental health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2(6), 728-737.
- Folkman, S., Lazarus, R. S., Dunkel-Schetter, C., DeLongis, A., & Gruen, R. J. (1986). Dynamics of a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M.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Fincham, F.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333-350.
- Jekielek, M. S. (1998). Parental conflict, marital disruption and children's emotional well-being. *Social Forces*, 76(3), 905-935.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2, 793-810.
- Kerig, P. (1996).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he conflicts and Problem-Solving Sca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4-473.
- Kerig, P. (2001). Children's coping with interparental conflict. In J. Grych & F. Fincham(Eds), *Child development and interparental conflict*(pp. 213-24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Nicholotti, L., El-Sheikh, M., & Whitson, M. S. (2003). Children's coping with marital conflict and their adjustment and physical health: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un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3), 315-320.
- O'Brien, M., Margolin, G., & John, R. S. (1995). Relation among marital conflict, child coping,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4, 346-361.
- Porter, B., & O'Leary, K. D. (1980). Marital discord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8, 287-295.
- Rogers, M. J., & Holmbeck, G. N. (1997). Effects of interparental aggression on children's adjustment: The moderating role of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25-130.
- Rutter, M. (1983).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nd some questions, In N. Garnezy & M.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pp. 1-141). New York: McGraw-Hill.
- Snyder, R. T. (1998).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what about gender? *Developmental Review*, 18, 390-420.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1차원고접수 : 2005. 9. 24.
수정원고접수 : 2005.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5. 12. 01.

Parents' marital conflict, coping,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of Adolescents

Kim, Oh Nam

Dept.of Social Welfare, Daebu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and the differences of affecting factors of parents' marital conflict, coping,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coping on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The subjects were the 460 of adolescents living in Kwangju and Chonnam.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t-Test, F-test, Pearsons' r, multiple regression by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Scores of parents' marital conflict was 2.612 and among parents' marital conflicts, resolution was the highest in 3.651 and then strength, efficacy of coping, frequency etc. Scores of coping was 2.740 and among coping method, rational coping is the highest in 3.273. Scores of mental health was 2.734 and among mental health, compulsion is the highest in 3.389. Scores of behavior problem is 1.911 which is lower than median. 2.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coping,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except rational coping. Coping had a significantly important relationship of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It needs to use coping to reduce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Adolescents' mental health was influenced by avoidance, expression of negative feeling or activity, parents' marital conflict, demand of help, and grade(33%). Adolescents' behavior problem was influenced by expression of negative feeling and activity, sex, rational coping, and grade(12%). In conclusion when parents' marital conflict was high, rational coping had a important role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Key words : marital conflict, coping, mental health, behavior problem